

문화산업의 융합과 공생 : 중국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평가 지표 연구

저자 | 상용(向勇)

번역 | 배혜은 (북경대 예술학과)

▶ 이 번역논문은 [2021년 아카루트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아카루트

문화산업의 융합과 공생 : 중국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평가 지표 연구¹⁾

상용(向勇)

*번역: 배혜은 (북경대 예술학과)

초록: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실행은 중국이 수출지향형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기존의 산업 발전 및 투자 평가에 관한 이론과 도시 문화력 발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문화 유전자 상관성, 문화 무역 원활성, 문화 인프라 상호보완성, 문화 교류 친밀성, 문화 지원 수용성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를 연구 방법으로 설계했다. 과학적이고 측정 가능한 평가 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이 문화산업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평가 지표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중국의 문화 교류 종합 순위를 평가하고, 국제 관계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는 융합과 공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중동부 유럽, 동남아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 등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며,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아시아 전체의 지역 형세를 파악해 문화교류와 산업 협력을 시도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발전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산업 협력, 태국 및 폴란드와의 인프라 건설, 아랍에미리트 및 싱가포르와의 문화교류에 투자하면서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의 문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들어가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민족주의 극대화, 전염병의 발발, 난민 위기, 그리고 세계 경제 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과 포용, 공유'는 인류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지향적 가치로 여겨진다. 특히, '융합과 공생'은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중 다민족문화가 번영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 가치이며, 오늘날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었다. 인류운명공동체²⁾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화 차원의 다양한 융합은 각국의 고유성과 민족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삼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들은 함께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 차원의 협력과 공생을 중시해야 한다. '융합과 공생'이라는 가치는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모든

1) 向勇,李尽沙.融合与共生：“一带一路”文化产业合作发展指数研究[J].深圳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2020,37(04):56-65.

2) 역자 주: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인류운명공동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와의 상호존중과 협력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나라에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관련 문화산업 협력이 보다 과학적인 이론과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공통 목표를 추구하면서 각 국가가 지닌 고유성, 공통성, 효율과 평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의 가치를 아우르며 문화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수의 등장과 이론적 기초

중국이 주도하는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내륙과 해상 실크로드를 지칭하며,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제안해,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무역, 문화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현재 중국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2015년 3월, 중국 관련 부처에서는 '일대일로' 건설의 국가 차원 상층 설계 계획(顶层设计)³⁾을 발표하며, 모든 국가 산업에서 '일대일로'의 혁신과 발전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그 중 '민심상통(民心相通)'은 '일대일로' 제안의 사회적 토대이자 융합과 공생을 실현하는 첫 번째 요소로 작용한다. 융합과 공생은 중국 문화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각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상호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가치이다.

2016년 12월, 중국 원(原) 문화부(현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⁴⁾는 '일대일로' 연선국들과의 관계에서 문화 발전에 초점을 맞추며 규칙과 조항을 제정하고, 특히 문화 교류의 다양한 가능성을 강조했다. 2018년, 원 문화부, 국가여유국은 '일대일로' 문화무역 및 투자 중점 프로젝트, 2019년 '일대일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국제 협력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우수한 문화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대거 지급했다. 정책적 차원에서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비교우위와 절대우위를 활용하여 상호 보완과 협력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 국가의 문화산업은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가치관과 전통적 요소는 국가 교류와 협력의 정신적 유대감으로 작용하고 한편으로는 국가 간 충돌과 대립을 일으키기도 한다. 복잡한 국가 정세 속에서 문화산업 자체 발전 법칙에 따르면,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평가 지표의 과학적인 가치 측정 방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국가적 문화산업 경쟁력과 투자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문화산업의 협력 발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국가문화산업 경쟁력 이론의 발전 역사

'융합과 공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동 발전의 잠재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공생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문화산업의 국제화 협력 발전 평가 체계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현대 중국 학계에서는 문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전망을 예측하는 이론적인 연구 성과가 국가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

3) 상층 설계(顶层设计):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 문건에서 처음 언급한 말로, 가장 높은 산꼭대기를 의미한다.

4) 2018년 3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출된 <국무기구 개혁방안>을 통해 중국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이 통합되어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로 활용되고 있다.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는 국가경쟁력을 "국가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개념만이 국가의 생산성이다"라고 평가했으며,⁵⁾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경제 뿐만이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도전-응전' 모델을 제시했다.⁶⁾ 이밖에도,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⁷⁾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강조한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만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관점⁸⁾은 물론이고,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3T이론'(인재, 기술, 포용성)으로 유럽의 창조산업 발전 현황 및 도시의 창의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까지,⁹⁾ 앞서 언급한 학자들의 이론은 본문에서 지표를 구축하는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었다.

중국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후후이린(胡惠林)은 실증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물질적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GDP 지표, 삶의 질 향상을 보여주는 사회제도 발전 지표를 활용해 중국문화산업 발전 지표 연구 모형을 제시했다.¹⁰⁾ 치슈위(祁述裕)는 전 세계 문화산업의 발전 특징에 근거해 생산 요소, 수요 현황, 기타 연관 산업, 문화기업 전략, 정부 행위 등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산업 국제경쟁력 지표 체계를 분석했다.¹¹⁾

종합하면, 문화산업은 기존의 단순한 산업 형태로부터 한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용(尙勇) 등은 '문화력(文化力)'의 관점에서 도시 발전에 작용하는 문화의 힘과 가치를 강조하고, 문화 유전, 문화 활력, 문화 침투, 문화 교류, 문화 지지 등을 핵심 요소로 하는 '도시 문화력 발전 평가 체계(MEPIS지표)'를 제안했다. 협의적으로는 도시 발전에서부터 광의적으로는 국가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산업 발전은 문화 자원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다양한 업종과 서로 다른 주체의 공생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¹²⁾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2) 투자무역 타당성 평가 관련 이론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투자 가치 평가 모형은 국제적으로 단일 항목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 3자 투자 자문기구에게 요청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시아 릿박(Isiah A. Litvak)과 피터 바팅(Peter M. Barting)은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Cold and Heat'라는 비교 방법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투자와 무역의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¹³⁾

5) (美) 마이클·波特. 국가 경쟁优势[M].李明轩,邱如美译.北京:中信出版社,2007.212-234.

6) (英)阿诺德·汤因比.历史研究[M].刘北成,郭小凌译.上海:世纪出版社,2005.82.

7) Keohane R O, Nye J S.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J]. Foreign affai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8, 77(5): 81-94.

8) (美) 萨缪尔森·亨廷顿. 文明的冲突[M]. 周琪等译. 北京: 新华出版社, 2012. 135-136.

9)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J]. Washington Monthly, 2002, 35(5)

10) 胡惠林. 文化产业理性发展的尺度——构建具有路标导向的中国文化产业发展指标体系[J]. 上海交通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4, 22(4): 82-87.

11) 祁述裕, 殷国俊. 中国文化产业国际竞争力评价和若干建议[J]. 国家行政学院学报, 2005, (2): 50-53.

12) 向勇, 白晓晴, 李尽沙. 中国城市文化力发展评价指标体系研究[J]. 福建论坛(人文社会科学版), 2018, (4): 51-59.

중국 국내 연구 중 북경공상대학이 발표한 『국제무역투자위험지수 보고서(国际贸易投资风险指数报告, ITIR)』에서는 정치 위험, 경제 위험, 정책 위험, 지불 위험 등 4대 큰 지표와 16개 세분 지표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의 무역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¹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도시투자 환경 종합 평가 시스템'에서는 투자 활력 변수, 투자 승수, 투자 시장 변수, 소비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¹⁵⁾ 중국 국내 연구를 종합해보면, 여러 요소 간의 영향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했으나, 문화산업이라는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응용성 평가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국가 간 투자 평가의 실제적인 현장 검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사이의 산업 협력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문화 산업이 함께 발전할 경우, 국가 간의 이익 경쟁과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가치관의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 발전 평가 지표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투자 무역 타당성 평가를 기초로 삼아 산업의 개별적인 특성과 현실 상황을 반영해 미세하게 조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일대일로 관련 평가 지표

'일대일로'가 지향하는 융합과 공생이라는 가치와 관련 정책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타이허싱크탱크(太和智库)와 북경대학교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5통 지표 연구 보고서('一带一路'五通指数研究报告)』에서는 정책 소통, 인프라의 연결, 무역의 원활성, 자금의 순환, 국민들의 교류 등 다섯 가지 측면을 통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 94개국을 분석 및 평가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들은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는 소통형, 연결형, 양호형, 잠재력형, 취약형으로 구분된다. 총 점수 70점 이상으로 집계된 국가는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독일, 태국, 영국, 몽골,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다.¹⁶⁾

2018년 6월, 중외도시경쟁력연구원은 『2018년 '일대일로' 투자 성과 우수 국가 순위(2018'一带一路'投资成果最显著国家排行榜)』를 발표했다. 해당 순위는 경제 무역 거래 지수, 지역 자원 보유 지수, 정부 참여 지수, 투자 성과 지수 등 4가지 1차 지표와¹⁷⁾ 더욱 세분화된 16가지 2차 지표로 구성된 "'일대일로' 투자 우수 국가 평가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일대일로 투자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10대 국가는 싱가포르, 파키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이다.

북경대학교 세계인터넷연결연구센터 구춘광(古春光) 연구원은 무역 투자 수준, 무역 투자

13) Litvak I A, Banting P M.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business arrangement [J]. Marketing and the New Science of Planning, America Marketing Association, 1968, (1):460-497.

14) Zhu J, Xingmei X, Miying L, et al. Global Report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isk Indexes Of 100 Countries (ITIRI 2006) [J]. China's Foreign Trade, 2007, (23):39-43

15) 王元京, 叶剑峰. 国内外投资环境指标体系的比较[J]. 经济理论与经济管理, 2003, (7):14-21

16) "Five Connectivity Index" Research Group of Peking University. World Premier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018 Report on Five Connectivity Indexes at Taihe Civilizations Forum [EB/OL]. <https://ocean.pku.edu.cn/info/>

17) 中外城市竞争力研究院. 2018 一带一路投资成果最显著国家排行榜[EB/OL].

<http://www.gqfgi.com/Ch/NewsView.asp?ID=1210&SortID=22>, 2019-11-08.

시설, 무역 투자 환경을 제 1차 지표로 구성된 "'일대일로' 무역 투자 지수"를 제시했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러시아 및 주변 지역, 동남아 지역이 중국이 무역 투자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지역이라고 밝혔다.¹⁸⁾ 다양한 평가 방법의 융합적인 활용은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일대일로' 문화산업의 협력 발전 지표의 구조 체계

(1) 이론 모델

'일대일로' 문화산업이 주변 지역들과 함께 발전하려면 문화 자원의 개발 현황과 상업적인 투자의 협력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문화산업의 발전 법칙과 국가 간 산업 협력 규율을 존중해야 한다. 문화산업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든, 국제적으로 협력하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화 자원을 근본으로 삼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문화 제품으로 가시화하고, 나아가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산업의 주된 목표이다. 문화산업은 외부의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한 나라의 사회 및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주체의 의사 결정 및 정보 교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산업이다.

문화산업 발전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며, 서로 다른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문화산업의 융합과 공생이 가능해진다. 문화산업의 가치 평가는 산업·자원·정부 관리 등 하나의 단일한 요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산업의 역동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도시 문화력 발전 평가 지표 체계(MEPIS 지수)'에 근거해 다양한 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표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 구상은 다음과 같다.

문화 생태계는 산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력'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문화 생태계에서도 풍부한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서로 다른 국가 사이에서 문화 교류가 발생할 때, 서로의 문화적 의미를 수용하고 인정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 자원은 창의적인 가공 과정을 통해 문화 상품으로 발전하고, 시장의 논리를 거쳐 독립적이고 성숙한 문화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국가 내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다른 국가와의 문화 교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화산업은 각 도시의 운영 및 관리 시스템에도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삶의 질과도 연관되어 도시의 인프라 구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화산업 협력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한 나라의 문화산업이 다른 나라와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협력 발전 평가 지표는 문화 유전자 상관성, 문화 무역 원활성, 문화 인프라 상호보완성, 문화 교류 친밀성, 문화 지원 수용성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문화 교류의 다양한 층위와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그림1). 먼저, 문화적 유전자 상관성은 문화적 근본과 정신적 요소를 핵심으로 국가 간 융합과 공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 무역 원활성은 문화적 유전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국가 간 산업 협력이 가능한 기초 단계를 의미한다. 문화 인프라 상호보완성은 기존의 산업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에 협력 전망성을 예측한다. 문화 교류 친밀성은 외부 자원의 교환에 중점을 두며, 자원

18) 顾春光,翟崑.“一带一路”贸易投资指数:进展、挑战与展望[J].当代亚太,2017,(6): 4-23.

융합과 산업 공생의 전면적인 향상을 분석한다. 문화 지원 수용성은 정책, 교육, 인프라 등 기초적 요소를 통해 문화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지를 평가하고 공동 발전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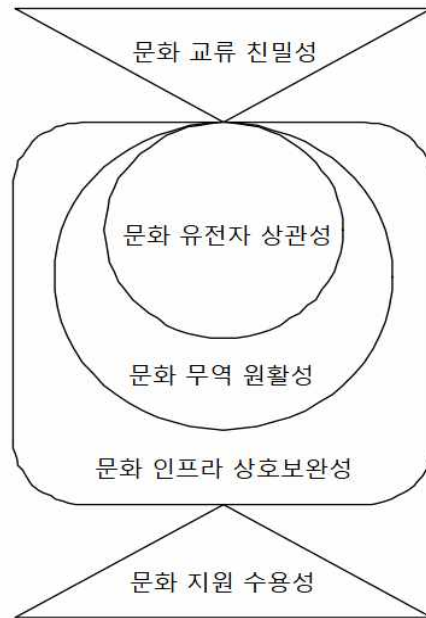


그림 1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평가 지표 모형

구체적으로 문화 유전자 친밀도는 '일대일로'의 5통(通) 목표¹⁹⁾ 중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의미한다. 문화 유전자는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의미하고, 문화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 자원은 문화산업 발전과 공공문화 건설에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국가적 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 양측 국가의 문화 자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통합 및 이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창의성 지수에서는 가치관 지수를 바탕으로 전통 관념이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도 했다²⁰⁾. 최근 중국 학술계에서도 문화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전대대학이 발표한 "중국 도시 문화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천부적인 문화 요소가 문화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심천대학에서는 "중국 도시 창의 지수 체계(CCCI)"를 제시해 '추진력'을 1차 지표로 정하고 공공 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의 보유 수량 등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점수를 매긴다. 댜슈에펀(段学芬)등 학자는 중국 도시 창의력 지수 지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화 환경'을 2차 지표로 설정했다. 즉, 지역 사회 공간을 형성하는 공공 인프라, 문화 공유 자원 등이 창의 도시 발전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문화 공연 활동 및 행사 등 데이터를 통해 천부적인 문화 자원은 주어진 것 뿐만 아니라 계속 창조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²¹⁾

19) 역자 주: 중국은 일대일로를 제시하면서 정책소통(政策溝通), 인프라연통(設施聯通), 무역장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 5통의 핵심 운영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20) Florida R.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J].WashingtonMonthly,2002,35(5).

21) 段学芬,王悦,雷鸣.中国城市创意指数指标体系构建研究[J].学术界,2013,(11):70-84+315

문화 무역 원활성은 '일대일로' 5통 목표 중 '무역 원할 정도'에 대응한다. 문화 무역은 국가 간 문화제품과 문화 서비스의 교류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특히 다국적 문화 기업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화 무역에서는 상대방 문화의 핵심을 이해하고, 산업의 공생을 추진하는 태도가 중시된다. 문화 무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국가 사이에서는 국민들 역시 상대 국가의 문화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광범위하게 판매되거나 홍보된 문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기초로 다음 단계의 심층적인 협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무역은 다양한 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상해교통대학이 발표한 '중국 문화산업 발전 지수'에서는 '대외문화무역'을 1차 지표로 삼고 수출 브랜드와 무역 수준을 평가했다.²²⁾ 그러나 최근에는 '일대일로' 국가 간의 무역 연구 중에서는 '무역 효율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장젠광(张剑光) 등은 무역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 무역의 발전 잠재력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²³⁾ 현재,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문화산업 협력은 주로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 위주로 진행된다. 따라서 문화 무역 원활성이 지니는 의미가 크며, 이 요소는 문화 교류와 협력의 초기 단계, 즉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상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화 건설의 상호 보완성은 '일대일로'의 5통 목표 중 자금 유통에 해당한다. 문화 건설이란 한 나라의 기존 문화 인프라 수준과 문화 발전 현황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문화 건설 수준은 한 나라 내부에서 비교적 양호한 문화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국적 문화 기업은 교류 국가의 시장 상황, 틈새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들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 우위를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인프라의 구축 현황과 미래 트렌드에 대한 평가는 각국의 통계와 데이터 수집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화 무역 등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왕홍타오(王洪涛) 등은 UNCTAD의 통일된 분류 기준을 활용해 수출구조의 유사성과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계산하여 중국과 아세안 문화산업의 경쟁 및 상호적인 영향을 평가했다.²⁴⁾ 문화 인프라의 공동 건설은 미래 국제 문화산업 협력의 주요 발전 방향이긴 하지만, 협력 발전 평가 체계의 핵심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 건설의 상호 보완성은 문화산업의 융합 및 공생의 발전 정도, 국가 간의 상호 참여를 평가한다.

문화 교류 친밀성은 '일대일로' 5통 목표 중 '민심상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지표이다. 문화 교류는 한 나라 문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니는 홍보 능력과 수용도를 평가한다. 끊임없는 문화 교류만이 국가 간의 문화 친밀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으로 거리감이 존재하는 국가라도 국민들의 우호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문화 교류 활동의 본질은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국민들끼리의 우호적인 감정으로 시작해 국가 산업 차원의 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객관적 효과가 있다. '중국 도시 문화 경쟁력', '중국 성시(省市) 문화산업 발전 지표' 등 연구 모델이 등장하면서 중국 학술계에서는 문화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국제 교류를 중요한 1차 지표로 삼아, 문화의 홍보와 개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평가한다. 따라서 문화 교류 친밀성은 융합과 공생의 외부적인 원동력을 평가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22) 胡惠林,王婧.中国文化产业指数报告[J].中国文化产业评论,2012,(2):3-21.

23) 张剑光,张鹏.中国与“一带一路”国家的贸易效率与影响因素研究[J].国际经贸探索,2017,33(8):4-23.

24) 王洪涛,周莉.中国与东盟文化贸易的竞争性互补性研究[J].学术论坛,2015,(11):129-135.

문화 지원 호환성은 '일대일로' 5통 목표 중 정책 소통과 인프라 연계에 해당한다. 문화 지원은 한 국가의 인프라와 인재 양성이 문화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 및 투자 수준을 나타내고, 문화산업의 발전 효율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국적 문화 기업은 현지의 문화 투자 및 지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보다 심화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린밍화(林明华)와 양용충(杨永忠)은 실증 연구를 통해 도시 발전이 창의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며, 그 다음으로 인프라 수준과 외부적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²⁵⁾ 교류 대상국의 문화 정책에 의거해 정책적 지원과 편의 제공, 현지 인재가 창의 산업에 행사하는 영향력, 현지 인프라의 효율적 보급 등이 선행되어야 문화산업의 각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문화 지원 호환성은 융합과 공생의 기초적인 효과를 평가하며, 특히 문화 유전자의 확장된 범위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표(표1 참고)는 산업 발전의 융합과 공생을 목표로 삼으며, 구체적인 발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중국 문화가 해외로 진출할 때 현지의 문화도 충분히 존중하고 공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국내 문화산업 발전의 실제 현황과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평가 지표의 체계적인 영향 및 다른 지표 간의 상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지표 선정에 있어 과학성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라별로 가중치를 두고 있는 요소의 비교우위를 인지해야 한다; ●해당 지표가 향후 미래 발전의 '호환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유동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 실제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1차 지표	가중치	2차 지표	가중치	3차 지표	데이터 구성	데이터 출처
문화 유전자 상관성	19%	역사 문화 자원	28%	역사문화유산 등급	세계 문화 유산, 세계 문화 경관 유산,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 세계 자연 유산의 수량 합계	세계 유산 목록
				역사문화 인프라 수준	박물관 보유 수와 도서관 보유 수의 합계	Museums of the World 2018 ; Librarymap. ifla.org
		문화 예술 자원	30%	문화예술 관련 활동 현황	영화 제작 수량 순위, 세계 아트페어 수량 순위 총 합계	IMDb 데이터; Arts Economics
				문화예술 인프라 수준	극장, 경기장과 문화 예술 센터 수량 합계	UNESCO 데이터 베이스; StadiumDB.com

25) 林明华,杨永忠.中国创意产业发展的影响因素及策略研究[J].华东经济管理,2012,26(8):19-23

		문화 자원 수용도	42%	문화 여행 인지도	국제 여행객 1인당 소비	UNWTO
				문화 이미지 지명도	국제 여행 지명도 순위	UNWTO
문화 무역 원활성	23%	문화 무역 수준	49%	문화 무역 발전 수준	문화 상품 국제 무역 수치 합계	U N Comtrade
				문화 무역 비교 우위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경쟁력 지수 (TC)	U N Comtrade
		문화 무역 효율	51%	문화 무역 개방 정도	무역 개방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베이스
				무역 물류 실적 지수	물류 실적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베이스
문화 인프라 상호보완성	18%	문화 인프라 수준	49%	문화산업 시장 규모	문화 상품 수출액	U N Comtrade 통계
				문화 인프라 보급 정도	문화 상품 수입액	U N Comtrade 통계
		문화 인프라 발전 전망	51%	문화산업 성장 잠재력	GDP 성장속도와 문화산업 특허출원의 상대적 증가 속도 비교	WIPO
				문화산업 창의력	국제 저작권 신청수	WIPO
문화 교류 친밀성	22%	정부 주도 교류 현황	44%	문화교류 주제 행사	중국 문화의 해, 문화 주간, 문화의 날, 환려춘제 등 행사 현황	문화여유국, 외교부 등 공개 데이터
				문화교류 기관 설립	공자학원, 공자학당 등 설립 기관수	공자학원총부 공식 사이트
		민간 주도 교류 현황	56%	문화연합 참여 현황	'일대일로'국제 박물관 연합, 미술관 연합, 도서관 연합, 극장연합의 참여수	연합 명단
				문화제 교류 현황	'실�크로드'국제 예술제 연합참여 수	연합 명단
문화 지원		문화 정책 지원	38%	산업 관련	산업 편의 지	세계은행 데

수용성	18%	교육 과학 연구 지원	31%	입법 현황	수	이터 베이스
				외국 기업 투자 지우너 수준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세계은행 데이터 베이스
				고등 교육 발전 수준	고등교육기관 입학률	UNESCO 데이터 베이스
		기초 인프라 지원	31%	해외 유학 협력 현황	전체 유학 교류 현황	ISSB
				문화 발전 인프라 수준	100명당 인터넷 통신과 개인용 컴퓨터의 보유 수량	UNESCO 데이터 베이스
				기초 인프라 협력 현황	중국이 현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 계약 체결에 성공한 횟수	중국 해외도급 프로젝트 발전 보고서 (2017-2018)

표 1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평가 지표

(2)지표 설정

(2)-1 지표 및 가중치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표는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5가지의 1차 지표, 12가지의 2차 지표, 24개의 3차 지표로 구성된다. 그 중 1차 지표는 국가 간 문화산업 협력에서 정치, 경제와 문화 전통 등을 요소를 광범위하게 고려한다. 2차 지표는 1차 지표를 구체화 시킨 것으로 다양한 지표의 객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표 간의 상호 작용 과정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3차 지표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능성 등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 중점을 둔다.

문화 유전자 친밀성(19%): 문화 유전자는 주로 전통적인 역사 문화 자원과 현대 예술문화 자원을 통해 표현된다. 국가 간 문화적 가치에 대한 상호 이해는 문화자원의 수용도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 유전자 친밀도 2차 지표에는 역사 문화 자원, 예술문화 자원, 문화 자원 수용도의 3가지 요소가 있다. 그 중 역사 문화자원은 문화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이 지표는 28%를 차지한다. 유형문화유산은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닌 형태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무형문화유산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지만 대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 문화를 가리킨다. 예술 문화 자원은 이러한 역사적인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산업을 발전시켜 탄생한 비교적 현대적인 문화 자원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는 30%를 차지한다. 문화 자원 수용도는 문화 자원이 목표 국가의 수용자로부터 광범위한 인정을 받아야만 개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지표이다. 일부 국가는 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목표 국가가 제공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높은 문화 할인율이 발생해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 과정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다. 해당 지표는 42%를 차지한다.

문화 무역 원활성(23%): 문화 무역은 현재 국가 문화산업이 대외적으로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문화 무역 수준(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의 수출입 상

향), 국가 간 무역 개방도, 무역 효율 등으로 세분화되며, 2차 지표에는 문화 무역 수준과 문화 무역 효율성이 포함된다. 그중 문화 무역 수준은 한 나라의 대외 문화 무역 발전 현황과 외국의 문화 상품에 대한 수용 정도를 대표한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교역액 순위, 문화 무역의 비교 우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해당 지표는 49%를 차지한다. 문화 무역 효율은 미래 문화 무역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문화 무역의 효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에서는 동일한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향후 긍정적인 시장 효과를 창출할 효과가 크다. 이는 주로 무역 개방도, 물류 실적 지수 등 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5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 인프라 상호보완도(18%): 문화 건설은 목표국가의 문화산업의 발전 상황과 전망을 의미하며, 문화 건설의 상호 보완도는 다양한 국가가 공동으로 발전이 가능한 기획의 여부로 평가한다. 해당 지표에는 문화 건설 수준과 문화 건설 전망이라는 2가지 2차 지표가 포함된다. 문화 건설 수준은 목표 국가의 문화산업 발전 현황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호한 문화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며, 문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를 평가한다. 문화산업 내부의 발전이 불균형할 경우, 잠재적인 목표 시장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시장 규모와 문화 인프라의 수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며 49%의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 한 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가 문화산업의 발전 속도보다 빠르고, 충분한 연구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국가의 자본이 아직 문화산업 건설에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국적 문화 기업의 협력 과정에 있어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 건설의 상호 보완성은 GDP와 특허 등록 속도의 비율, 창의력 평가 지수 등을 활용하며 총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 교류 친밀성(22%): 문화 교류 친밀성은 서로 다른 민족 문화의 상호적인 수용을 추진하며 협력을 위한 초석이 된다. 문화 교류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는 각각 2차 지표로 작용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 교류는 각국의 '문화의 해', '문화주간' 등의 공식적인 활동을 포함하며, 상호 문화 가치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지표이다. 문화 교류 밀접 지표는 중국어 교육 및 보급 기관인 공자학원과 공자학원 등의 문화 기구 설치와 '중국문화의 해', '문화 주간', '문화의 날', '환러춘제(欢乐春节)' 등 행사를 통해 평가된다. 해당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이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 교류는 문화 기관 연맹, 문화 축제 등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포함하며, 이는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화 홍보로 볼 수 있다.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하는 행사는 각국의 정치적 색채를 줄이고,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 박물관 연합, 극장 연합, 미술관 연합 등 각 문화 기관의 참여 현황과 '실�크로드' 국제 예술제 등의 문화예술 축제 개최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문화 지원 수용성(18%): 문화 정책, 교육, 과학 분야 연구와 기초 인프라 지원 등 3가지 2차 지표가 포함된다. 문화 정책 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며,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 정도와 상업 편의 수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지표는 38%를 차지한다. 교육 과학 연구 지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외국 기업이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데 장기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해준다. 그 중 고등 교육 수준과 해외 유학 인재의 비율은 국가 사이의 긴밀한 문화 교육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해당 지표의 차지 비율은 31%이다. 인프라 시설 지원은 안정적인 사회 환경에서 진행되며, 특히 소프트 파워의 행사에도 영향을 끼친다. 문화 설비, 인터넷 속도 등 삶의 질과 연관된 요소들을 고려하는 인프라 지원은 전체 비중의 32%를 차지한다.

(2)-2 지표 평가 설계

평가 시스템의 각 항목 점수는 백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지표와 2차 지표의 가중치는 델파이 기법으로, 3차 지표는 등가 합계의 방식을 통해 계산한다. 가중치 지표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산업 분야의 권위 있는 고등 교육기관 및 학자들에게 세 차례 자문을 요청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문 시에는 각각 15명의 전문가가 평가 시스템의 항목 설계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제출하고, 가중치를 매긴 결과를 종합하여 3차 토론회에서 참고하기로 했다. 3차 토론회에서는 1,2차를 바탕으로 북경대학(北京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 중국전매대학(中国传媒大学) 등의 전문 연구기관의 50명 학자가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 결과를 얻었다.

다양한 수치와 지표 간의 차이 및 불균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항목의 구체적인 수치 계산은 동일하게 극차 표준화방식을 통해 무차원 수(dimensionless number)²⁶⁾로 처리했다.

(2)-3 데이터 수집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표의 평가 대상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 단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표가 실제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에서 권위 있는 국가 및 정보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수집했다.

세 가지 데이터 수집 출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해외문화교류 센터에서 공개한 데이터, '중국문화의 해' 관련 공개 보도, 각종 문화연합 및 축제/행사 참여 상황 등 중국 관련 부처의 공공 데이터이다. 두 번째는 유엔의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네스코 통계 전문 기관(UIS), 세계은행(WB) 등에서 제공한 데이터이며, 세 번째 유형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글로벌 스타디움 전문 사이트(StadiumDB.com)와 같은 제3의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3.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표의 실전 응용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들의 값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일 때는 종합적 수치의 합리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극차 표준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매 항목의 최저 점수는 60점, 최고점은 100점으로 설정하고 각 항목의 평균 비율은 해당 지표의 구체적인 점수로 변환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7년과 2018년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국가에 한해서는 이전의 평균 데이터와 인접 국가와의 상황을 고려해 추산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관련 지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팀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수한 후, 2017년 이전의 관련 데이터를 수치에 대입해 보았으며, 다년간의 변화에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표를 이용해 64개 연선 국가와 지역을 평가했고,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각 국가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하면, 중앙아시아지역을 제외하고 중국과 각 국가는 모두 양호한 문화 협력 관계를

26) 역자 주: 실제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위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무단위 상태인 수를 일컫는 것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도 문화 교류를 진행할 때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동부 유럽(동아시아에서는 몽골만 독립 국가)와의 전반적인 협력 수준이 가장 높고, 국가 간 차이가 근소하다. 아세안 10개국, 독립국가연합 7개국과 중국의 협력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해당 그룹 내 국가들 사이에서는 편차를 보였다. 이는 각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에 속한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대상으로 1차 지표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해당 지역의 국민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무역 왕래, 산업 협력, 문화 교류 등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평균치	문화 유전자 상 관성	문화 무역 원형 성	문화 인프라 상 호보완성	문화 교류 친밀 성	문화 지원 수용 성	표준차	최대치
종합수치	77.8	78.66	78.79	77.82	75.22	79.19	5.49	89.80
아세안10국	79.60	79.15	81.02	80.71	76.62	80.77	6.03	88.73
동아시아(몽골)	80.79	80.79	80.79	80.79	80.79	80.79	0.00	80.79
서아시아 18국	76.87	79.50	77.30	77.30	69.44	78.52	5.94	86.41
남아시아 8국	76.08	78.23	76.83	76.83	76.47	73.86	4.72	85.20
중앙아시아 5국	74.29	68.88	68.97	68.97	80.34	73.59	4.24	81.77
독립국가 7국	78.76	78.51	78.04	78.04	81.84	81.34	5.69	89.80
중 동 부 유럽16국	79.39	80.86	79.98	79.98	75.04	82.23	4.18	86.27

표 2 '일대일로'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표, 지역별 점수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지리적 위치가 가깝지만, 같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끼리 충돌도 존재해 최근 몇 년 동안은 다양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지는 못했다. 중국과 인접한 13개 연선 국가들 중에 상위 20위에 속하는 나라는 러시아(1위), 인도(6위), 카자흐스탄(17위), 몽골(20위)이 전부이며, 앞서 언급한 국가들은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중요한 파트너지만, 실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지닌 문화 자원을 산업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 국가와의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적인 문화 외교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아시아 지역은 보유하고 있는 문화 자원 및 개발 정도와 중국에 대한 문화 수용도가 비교적 높으며, 중국과의 문화 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산업적인 협력과 문화 교류가 부족해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지원의 정도가 낮아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향후 교류 국가들은 협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자체 발전 정책이 문화 무역과 문화 교류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국제적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중국 기업은 장기

적인 안목으로 문화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 미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남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복잡함으로 인해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이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중국과 문화 지원 수용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중국 다국적 기업들은 민간적인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최종 점수가 비교적 높은 국가는 다른 지역이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므로 각 업계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최종 상위 5개국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순위	국가(지역)	점수	문화 유전자 상관성	문화 무역 원활성	문화 인프라 상호보완성	문화 교류 친밀성	문화 지원 수용성	5통 지수 순위	전문가 자문 종합 순위
1	러시아	89.80	9	12	12	1	8	1	3
2	태국	88.73	13	3	9	4	18	6	6
3	아랍에미리트	86.41	2	1	5	32	2	19	8
4	폴란드	86.27	7	5	1	16	29	17	-
5	싱가포르	86.11	10	2	2	48	1	2	1

표 3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수 상위 5개국

2017-2018년 평가 결과, 러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3위를 차지했고, 폴란드와 싱가포르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기타 '일대일로' 평가 지표 시스템에서도 러시아는 비교적 높은 순위로 기록되었다(5통 지표에서 1위, 투자수익 지표에서 3위). 러시아는 중국과의 각종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한 밀접한 상호 교류에서 경쟁 우위를 보였다. 정부 차원의 문화의 해, 민간 차원의 예술 단체 방문 교류 등은 중-러 문화의 친근성을 증진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양국의 국민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국경선이 비교적 긴 접경 국가로 최근 문화 인프라 건설 측면에서도 교류가 빈번해 문화 유전자 친화성, 문화 지지 상호도가 높다. 비록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외 무역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중국 문화 기업이 기존의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현지 문화 기업과 공생하며 그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사회, 경제 등 방면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화 산업에서의 융합 및 공생에도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문화 기업은 향후 다국적 협력 발전 과정에서 러시아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7-2018년도 평가에서는 태국이 2위를 차지했다. 기타 '일대일로' 평가 체계에서 태국은 비교 우위가 낮았지만 5통 지수와 투자 수익 지수 모두 6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긴밀한 문화 교류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분석된다. 태국의 문화 발전 우위는 문화 무역 원활도와 문화 건설의 상호 보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태국은 무역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최근 20년 동안 '일촌일품(一村一品)' 계획²⁷⁾을 추진해 풍부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자국만의 무역 패턴을 형성했

27) 역자 주: 농촌 경제 개발을 위해 한 마을에 한 품목의 특산품을 개발하는 운동(One Commune,

다. 문화 및 무역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태국이 제시한 동부경제회랑(EEC)²⁸⁾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유사한 점이 많고, 발전 계획 중에서도 양국은 문화 관광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곧 착공하게 될 중국-태국 철도 협력 프로젝트와 후속 관련 프로젝트도 문화 지원 수용도를 강화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17-2018년 지표 평가 3위는 아랍에미리트이다. 기타 '일대일로' 평가지표 중에서 아랍에미리트는 5통 지표 19위, 투자 수익 지표 8위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문화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한 국가로서 문화 시장의 완성도는 다른 '일대일로' 연서 국가 보다 높은 편이며, 문화 유전자 친밀성, 문화 무역 원활도, 문화 건설 상호 보완성 등 방면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인다. 최근에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쌍방은 문화 관광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하며, 문화산업 공생에 있어서 장기적인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양국은 공동 투자 기금 MOU를 체결하고, 기초 인프라 건축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종교적인 배경과 문화 전통에 있어서는 두 국가 간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같은 시기, 폴란드와 싱가포르이 나란히 4,5위에 선정되었다. 폴란드와 싱가폴은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5통지수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각 나라 내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문화산업이 구축되어 있다면,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싱가폴의 경우 자체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아 잠재력과 협력 가능성에서는 폴란드보다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화 기업 진출 정책을 펼쳐 윈윈 결과를 얻어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협력을 다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정책에 포함되는 국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일부 국가의 두드러진 역할을 중시하고 다른 국가의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협력 발전 지표를 통해 거시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국가들의 독특한 문화 자원과 잠재력을 발견해 이를 계기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각 국가는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물론 연구 과정에도 일정 부분 제한이 존재해 본문이 제시하는 '일대일로' 문화산업 협력 발전 지수는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성에 관한 평가는 최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또 일부 연선 국가의 문화 교류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평가 체계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One Product)

28) 역자 주: 태국투자위원회(BOI)가 제시한 동부 해안지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프로그램'

참고 문헌

영문 문헌

“Five Connectivity Index” Research Group of Peking University. World Premier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018 Report on Five Connectivity Indexes at Taihe Civilizations Forum [EB/OL]. <https://ocean.pku.edu.cn/info/1165/3077.htm>, 2019-11-08.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J]. Washington Monthly, 2002, 35(5).

Keohane R O, Nye J S.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J]. Foreign Affai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8, 77(5): 81-94.

Litvak I A, Banting P M.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business arrangement [J]. Marketing and the New Science of Planning, America Marketing Association, 1968, (1): 460-497.

Zhu J, Xingmei X, Miying L, et al. Global Report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isk Indexes Of 100 Countries (ITIRI 2006) [J]. China's Foreign Trade, 2007, (23): 39-43.

중문 문헌

阿诺德·汤因比. 历史研究[M]. 刘北成, 郭小凌译. 上海: 世纪出版社, 2005. 82.

段学芬, 王悦, 雷鸣. 中国城市创意指数指标体系构建研究[J]. 学术界, 2013, (11): 70-84+315.

顾春光, 翟崑. “一带一路”贸易投资指数: 进展、挑战与展望[J]. 当代亚太, 2017, (6): 4-23

胡惠林. 文化产业理性发展的尺度—构建具有路标导向的中国文化产业发展指标体系[J]. 上海交通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4, 22(4): 82-87

胡惠林, 王婧. 中国文化产业发展指数报告[J]. 中国文化产业评论, 2012, (2): 3-21.

林明华, 杨永忠. 中国创意产业发展的影响因素及策略研究[J]. 华东经济管理, 2012, 26(8): 19-23.

迈克尔·波特. 国家竞争优势[M]. 李明轩, 邱如美译. 北京: 中信出版社, 2007. 212-234.

祁述裕, 殷国俊. 中国文化产业国际竞争力评价和若干建议[J]. 国家行政学院学报, 2005, (2): 50-53.

萨缪尔森·亨廷顿. 文明的冲突[M]. 周琪等译. 北京: 新华出版社, 2012. 135-136.

王洪涛, 周莉. 中国与东盟文化贸易的竞争性与互补性研究[J]. 学术论坛, 2015, (11): 129-135.

王元京, 叶剑峰. 国内外投资环境指标体系的比较[J]. 经济理论与经济管理, 2003, (7): 14-21.

向勇, 白晓晴, 李尽沙. 中国城市文化力发展评价指标体系研究[J]. 福建论坛(人文社会科学版), 2018, (4): 51-59.

张剑光, 张鹏. 中国与“一带一路”国家的贸易效率与影响因素研究[J]. 国际经贸探索, 2017, 33(8): 4-23.

中外城市竞争力研究院. 2018一带一路投资成果最显著国家排行榜 [EB/OL]. <http://www.gqfji.com/Ch/NewsView.asp?ID=1210&SortID=22>, 2019-11-08.